

광림의 강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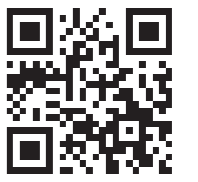
*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라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광림교회 오시는 길 _ Information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 02.2056.5600 | 5700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4,5번 출구 - 도보 5분

압구정역 버스정류장
간선 147, 148, 240, 463
지선 33, 4211

광림교회 버스정류장
간선 143, 240, 342, 362, 440, 472
지선 3011, 4318, 4412, 4419

주차장 이용안내
광림사회봉사관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와
YOUTUBE(광림교회 채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배모임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 4부 오후 2시 30분 (찬양예배)
2부 오전 9시 | 5부 오후 4시 30분 (젊은예배)
3부 오전 11시 | 저녁 오후 7시 30분

주일 외국어 예배

영 어 오후 2시 30분 웨슬리관 3층
중국어 오후 3시 웨슬리관 5층

수요 치유의 신학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 은혜의 밤

금요일 오후 8시

새벽기도회

1부 새벽 5시 벨엘성전
2부 새벽 6시 교육관 2층

광림남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45 ☎ 031.693.7960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
4부 오후 2시 30분
저녁 오후 7시 30분

수요 치유의 신학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 은혜의 밤

금요일 오후 8시

새벽기도회

1부 새벽 5시 | 2부 새벽 6시

광림서교회

인천시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96
☎ 032.721.5750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
저녁 오후 7시 30분

광림북교회

경기도 의정부시
송현로 82번길 5
☎ 031.928.5970

수요 치유의 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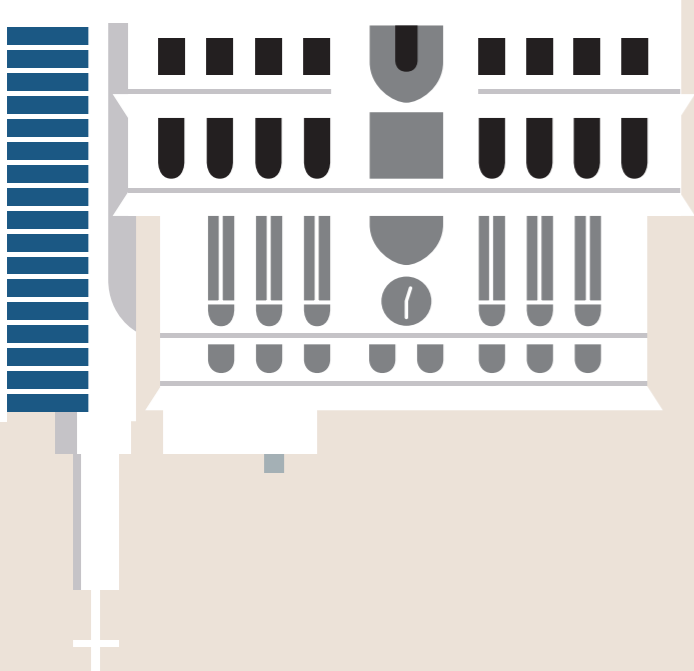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 은혜의 밤

금요일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유튜브(관람교회 채널)
바른가기

프레시안 문화학교

온타임 (Ontime)

관람 4 STEPS 리더교동

관람교동 프로그램

- 추조라이프 (Choose Life)
- 어번던트라이프 (Abundant Life)

청년부 주일 1시 30분 / 관람사회복지관 4층 컨벤션 B를
 '어덜다공 거점' 등 이루어가는 만 35~39세의 1인 거점과 다인거점이 연합하여
 한 문동 이를 문동체입니다.
 문의: 02-2056-5631

청년부 주일 4시 30분 / 대예배실
 어너님의 문동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지키는 청년들의 문동체입니다.
 문의: 02-514-8871

관람교동 특집부서
 어너나 (개임으로 배우는 성경 문동) : 주일 2시 30분 / 교동관 2층
 어린이 연어 예배부 : 주일 11시 / 웨슬러관 4층
 어린이 출구 교동 : 주일 1시 30분 / 신구초등학교
 씨다스 파이어 (어린이 중동단) : 주일 1시 30분 / 교동관 5층
 문의: 02-2015-1168

관람교동
 영유아, 유치, 초동, 중고동학새에 이르는 다음 세대를 문동으로 영동하는 문동체입니다.
 문의: 02-2015-1168

새가초반 새문 주일 오전 10시 사회복지관 5층, 새기문 주일 오전 10시 사회복지관 5층
 관람교동에서 새문생활을 시작하시는 어드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문동는 시작입니다.
 문의: 02-2056-5716

관람교동은 사랑을 시작하는 문동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있으면서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됨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13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핍박이나 오해나 비난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힘과 권력과 물질과 같은 세상의 것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란과 역경, 문제와 어려움 앞에 담대하게 하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피 값으로 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4 -

루체포레



광림사회봉사관 내 위치한 편안하고 따뜻한 카페입니다. 빛의 숲 서점이 있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문의 02-2015-1187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라

담임목사 김 정 석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26장 25~34절)

전도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일로 인해 여종의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고, 심한 매질을 맞고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갇혔음에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흔들리고 쇠고랑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지키고 있던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불러 죽지 않도록 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30)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31)라고 말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가 된 인간에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 마음, 태도, 육체가 회복됩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하고, 인정해야 하며,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는 동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관계에서 제자가 아닌 팬으로 남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은 삶의 의미가 충족되며, 열정이 넘치며,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생의 여정 중에 부족함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력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여리고 성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눅 19: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물질이 삶의 중심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비록 빌립보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교자가 되는 것임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새롭게 태어나 거듭난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거듭나지 못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낮아짐으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영원히 지속될 때, 매일매일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로,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중에 있으면서도 비굴함이나 두려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영상 콘텐츠 이용 안내



주일설교요약, 온타임 묵상 등 영성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에서 광림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추가 영상을 손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9월 7일~11일 30일

(예 4:14)

For such a time as this

“이 때를 위하여라”

에수라 · 노웨미야 · 에수더

2021 트리니티
서서대회원 기쁨하기

